

March 14 애통, 어두운 밤의 복

• 마태복음 5:4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애통과 원망을 구분해야 합니다. 존 오트버그는 탄식(애통)은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고, 원망은 ‘하나님에 관해’ 불평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탄식(애통)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이루어지지만, 원망은 하나님 등 뒤에서 이루어집니다. 애통함으로 주께 나아가는 자는 위로를 받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위로’를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기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분의 품 안에서 세상으로는 얻을 수 없는 참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됩니다(요 14:27). 원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지만, 애통은 더욱 깊고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는 애통을 통해 복으로 나아갑니다. 고통과 애통함 속에서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가와 도요히코(목사, 사회운동가)는 애통을 통해 사선을 넘게 될 때, 인간은 ‘인간의 깊은 뜻’을 찾게 된다고 말합니다. 인간이란 단순히 육체가 아니라 그 속에 불멸의 영혼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밝은 낮에 모든 걸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밤에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밤하늘을 수놓은 아름다운 은하수, 은하계 끝의 별들... 우리는 애통이라는 어두운 밤에 하늘나라를 보게 됩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차리는 새롭고도 민감한 감각들을 익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은 무엇일까요? 애통에 쓰인 헬라어 ‘펜테오’는 가장 강한 뉘앙스의 ‘슬픔’으로 죽은 이를 생각하며 애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자가 끊어질 듯한 슬픔입니다. 우리는 결핍과 상실, 욕망과 분함으로 애통해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범주 안에서 애통해합니다(마 6:31-32). 그러나 예수님은 겹새마네 동산에서 애통함으로 기도하셨습니다(눅 22:44; 히 5:7). 나의 뜻을 누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자 애통해하신 것입니다.

나는 애통하는 자입니까?

- ① 나는 애통하는 자입니까, 원망하는 자입니까?
- ② 나는 무엇으로 애통해하고 있습니까?